

# 반역의 압살롬, 다윗의 피신

## 사무엘하 15장

### ◆ CHECK POINTS

- ①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하지 않고 피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법계와 제사장을 예루살렘 성소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나눈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복수하고 도망쳤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떨어져 살다가 상봉하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으로 18장까지는 다윗과 왕국에 최대의 대내적 위기가 닥쳐 옵니다. 다윗 왕이 이전에 지었던 죄악에 따르는 형벌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열, 왕국의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 ◎ 반란을 꾀하는 압살롬 (1-12절)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에  
동조하는 백성들

삼하 15:9-11  
요 8:32-247  
딤후 3:1,2

압살롬은 어떤 책망도 없이 묵인하고 거부하기만 하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상처가 깊어졌고 결국 그의 실망은 자신에 대한 과신과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반란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1) 그가 말을 타고 50명 호위병을 거느리는 것은 왕들에게 전무한 일이었으며 이미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또한 압살롬은 교묘하게 민심을 얻고자 왕에게 재판관을 요청하러 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길가에서 만나 은근히 왕과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성실과 능력을 어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3) 그렇게 4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원을 지키고자 헤브론에 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을 가장한 거짓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요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은 계락을 세우고 헤브론에서 200명의 유지들을 동조자처럼 보이게 속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합세하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과 압살롬”(David and Absalom)  
마르크 샤갈 (Marc Chagall)의  
성서 석판화 가운데 1956년도 작

**삼하 15:9-11**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 때에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눅 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깨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딤후 3:1,2**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압살롬은 1) 교만하여 가질 수 없었던 권력을 누리려고 하였고 2) 간사하여 백성들을 기만하려 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자기의 사악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자의 믿음을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암논을 죽일 때와 같이 은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의 계략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 ◎ 피난을 떠나는 다윗 (13-23절)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지원하며  
따라가는 백성들

다윗은 젊은 시절에도 사울을 피해 쫓겨 다녔는데 이제 압살롬의 칼을 피해 열 명의 후궁만을 성에 남겨두고 피신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복선이 됩니다.(삼하 12:12)

다윗의 행렬이 벳메르학에 멈추었을 때 가드 사람 잇대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맹세하였으며 온 백성은 슬퍼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삼하 15:13-15  
시 146:2-5  
요 8:42-47

**삼하 15:13-15**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 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시 146:2-5**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낌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 8:42-47**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명장이였고 강력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결사 항전이 아닌 도피의 길을 택한 이유는 승패를 떠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전화에 휩싸여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했던 다윗을 보고 잇대와 같은 이들이 광야 길에 동참하였고, 다윗은 그런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혼란의 때에 자기 탐욕을 채우지 않으며 하나님 교회와 양의 안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기와 고난은 주님 앞에 옥과 석을 나누는 과정이 됩니다.

###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법궤와 사람들 (24-37절)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으로 보냄

삼하 15:25,26  
약 4:6  
요삼 1:2-4

다윗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갈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지휘하여 법궤를 메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통해 능력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자신으로 다시 성소에서 법궤를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두고 거기 머물며 다윗을 돕게 됩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하고 울며 온 백성들도 그렇게 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친구이자 전략가인 후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압살롬의 계략을 간파하게 만듭니다.

**삼하 15:25,26**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요삼 1:2-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형벌의 과정이었으나 주님께서서는 이를 사악한 자들을 걸러 심판하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와 도움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는 도피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악한 영의 세력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하나 주님께서서는 그의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지키려는 이들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 ▣ 참고자료: 영원한 반역자의 이름, 압살롬 (Absalom)



“압살롬의 죽음”(Death of Absalom) 모건 성경 중 (The Crusader Bible from the Morgan Library)